

연 중 제 33 주 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P. 477 C해

- 1독(말 라 4, 1-2a 절)
- 2독(데 살 후 3, 7-12절)
- 복음(루 가 21, 5-19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협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강론〕



제 10차 평신도의 날

현실 세속 안에 깊게 파고 들어가
빛과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 주어야,
이 일이 평신도의 司祭職 預言職 王職...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10차 평신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신도의 날을 설정하고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면 강론과 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의 날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지냄으로써 평신도 날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날을 맞아 더욱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반성, 자각하고 일상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생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현장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보면 우리 평신도의 지위와 의무와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 자신이 이를 공부하고 자각하여 참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평신도들은 복음의 전파와 인간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현실속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완성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인간 구원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도직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안에 살면서 세속일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의 특징이며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평신도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야 하며, 누룩의 역할을 다하여 세속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평신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서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성체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의 성신의 힘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강해졌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받았읍니다. 교회헌장 4장 33항에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의 구원 사명 자체의 한 부분이며, 주께서 친히 성세와 견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도직에 부르는 것이다. 「모든 신도들에게 관계되는 이런 사도직 외에도 평신도들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성직자의 사도직을 돕기 위하여 불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면에 계속)



성인의식과 일치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0차 <평신도의 날>을 맞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 총재이신 김재덕 주교는 한국의 모든 평신도들에게 몇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성인(成人) 의식을 갖자.

천주교의 한국 전래 역사를 보더라도 평신도의 역할은 말과 글로 다할 수 없을만큼 컸고, 또 자주적이었다. 또한 교황청에서의 평신도에 대한 크나큰 이해로 평신도의 날을 제정한지 10년이 된 오늘, 이제 평신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그 터전을 굳게해야 한다. 또한 자주적이라함은 책임을 지겠다는 굳은 결의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둘째, 더욱 일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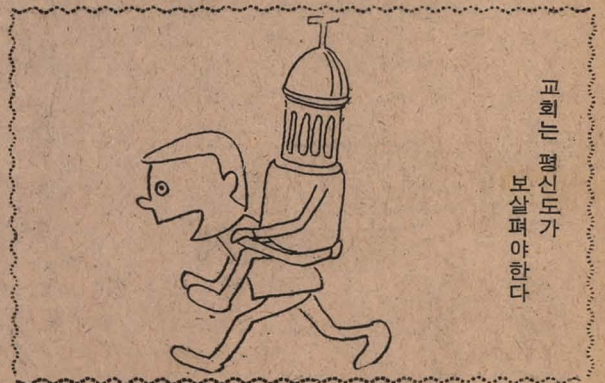
오늘의 한국 실정처럼 일치가 요청되는 때도 없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일을 해나가는데 그 방법이 다를 수도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는 원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형제애를 거스려 일치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째, 평신도의 일터인 이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먼저 우리들이 그 모범을 보이자.

이 시대는 커다란 혼란과 부조리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조그마한 일부터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자.

끝으로, 사제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지켜보아주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숲 정 이 산책



교회는 평신도가 보살펴야 한다

(2) 순 정 이

(1년에서 계속)

또한 37항을 보면 「평신도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지식과 능력과 자각에 따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가 있다.」 「목자들은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그들을 믿고, 교회에 봉사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그들에게 남겨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회장 4장 33, 37항 두항만 보더라도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현세에서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열성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전파와 성화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증언과 초자연적 정신의 선행은 사람들을 신앙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인 사도직 수행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마태오 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성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직은 생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참된 사도직은 말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신자를 더욱 굳세고, 열심하고, 참되게 생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 분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속안에서의 복음의 생활화, 즉 증거가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안에 사는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신 사도 바울로의 말씀이 우리 평신도들 마음속에 메아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힘을 얻고 활동으로 사랑을 생생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곧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아 앞에서 말씀한 우리들의 의무와 권리를 재인식하면서 평신도인 우리들의 자각과 반성, 그리고 능동적인 사도직 수행에 더욱 분발하자는 말씀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의무와 봉사보다는 권리와 주장을 앞세우는 태도를 지양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결허한 자세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우선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에서 일치로, 불화에서 화목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평신도는 모든 일을 인간의 능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천능에 의탁하여 기도와 신앙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협에서는 위에서 말씀한 신앙적 바탕을 근거로 하여

1978년도 평협운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시성,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
2. 평신도 재교육 운동~먼저배우자~그리고 가르치자
3. 신자 배가 운동
4. 냉담자 회두 운동
5. 교회 간행물 보급 운동~가톨릭시보-경향잡지-가톨릭소년-
6. 조직의 확대와 재정비
7. 가정 성화운동
8. 대 사회 선교운동의 구체화 등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목표는 하등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평신도들이 일상 수행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가지 운동을 올바른 구심점을 찾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참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속안에 깊게 파고 들어가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신도 교유의 사명인 왕직·예언직·사제직을 훌륭하게 성취해야만 되겠습니다.

※ 지금 이 순간부터 평협활동에 참여하는 단적인 예는 오늘 바치는 헌금이 바로 평협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도직 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자매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7. 10. 13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

☆교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 리 경 문 학 원

◎이리역 앞(서울 신막은행4층) ☎ 59 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④ 4 4 5 1 풍년제과 분점앞



행복한 가정운동 지도원 모집

가. 모집 인원: 3명

나. 자격: 간호원 또는 보조 간호원

고졸이상의 50세 미만의 기혼 여성

다. 제출서류: 이력서, 사진 2매, 본당 신부 추천서
라. 면접: 11월 15일 10시, 가톨릭 센터



外國人 活動規制 法案 撤回 요구

(외국인 활동규제 법안 철회)

● 성명서 ●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여당 정책심의회에 넘겼고, 그뒤 이 개정안은 정부 각의(閣議)에서까지 통과되어 이제 국회에 상정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한편 외국인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주무관청으로부터 한층 강화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외국인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되어있고, 한국정부가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외국인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신분과 직능으로 보아 주로 정치활동의 규제대상은 외국인 선교사들이며, 또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가톨릭교회에 소속된 600여명의 성직자·수도자들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이번의 개정 법률안을 중대시하게 된다.

이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국 목적 이외의 「정치활동」이라는 개념의 한계이다.

이 문제는 다시 「정치」와 「종교」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자기 자율적인 직능을 지닌다. “그러나 양자 다같이 명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사명에 봉사한다.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 구원에 필요할 경우에는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제76조가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옹호는 정치와 종교 양분야의 공동과제이며, 따라서 정치인과 종교인이 과제를 위해 서로 협력할수록 모든 인간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 개정 법률안이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옮겨진다고 할 때 「인간 기본권」 옹호 문제를 둘러싼 어떤 견해 차이가 이른바 「정치활동 규제」에 저촉되고, 그로인해 외국 선교사들에게 억압이 가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총괄하여 볼 때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일찌기 이즈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와 정부의 세주주의 정책에 의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국 민족안에 진리·정의·개화·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에 헌신하였다. 오늘날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역사가 옛날로 후퇴되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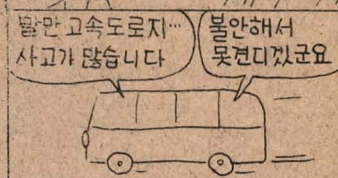
이미 있어온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도 지난 '75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출국당한 사례가 있다. 이제 새로이 외국인 규제 법안을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몇몇치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이익」에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일이라고 믿어, 이에 우리는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77. 10. 24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요심이 (224) 그병오



□ 개업 안내 □
벵타이, Y셔츠,
양말, 스카프 도산매

한 바다

박 종 철(야오킵)
이 윤 례(메테사)

전주시 중앙동
신세계 데파트 ←→ 구라과 체과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난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양심을 찾자

카메라 대여, 학교 각종 사진 출장

중앙사진관

한 원 규(야오코)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로, 스킨

문화양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송의과 맞은편 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경윤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르)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 부탁드립니다

1. 전주교구 교리교사를 위한 심포지움 (19<토>오후 3시, 카톨릭센터)
분당 및 공소 교리교사는 물론, 교리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 제 2 지구-군산·대야·합영·용안·화산·응번대회 (27일<일>오후 2시...출정이 258호 참조)
3. 한국 가톨릭 농민회, 쌀 생산비 조사 보고 대회 및 추수 감사제 (11월 21일-22일 12시)
① 행사 내용...<제1부>추수 감사제 (21일 오후 2시), <제2부>쌀 생산비 조사 보고 대회 (4시)
<제3부>농민의 밤 (6시반), <제4부>농민 문제 사례 분석 (22일 오전 9시)
② 참가비...500원 (저녁과 점심 식사제공) ※ 많은 참석 바람
4. 제 3 차 마인드콘트를 공개 강좌 (11월 17일<목>오후 7시, 카톨릭센터)

□ MBC TV안내 (복자 순선지와 순교지 소개)...13일<일>오전 8시 (재방송-19일 <토>오후 4시)

(중양)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득 보좌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우리아 윌레회: 13일<오후>일 오후 2시, 강당
2. 가정방문: 인후동, 경원동, 고사동 (15일부터)
3. 성인 남자 예비자 교리: 매주<목>밤 8시, 사제관
4. 우리아 연수회: 19~20일, 강당
5. 은퇴하신 이철연 신부님택에 화재 (10월 28일), 협조바랍니다
6. 성가 연습: 미사전 15분간
7. 혼인성사 받으실분들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 면담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25,80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웅용 사도 회장 박웅용

1. 성모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용조합 윌레회 (매<토>오후 3시)에 관심가지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4. 재속 형제회 수련 13일<일>오후 4시
5. 각단체의 신년도 계획수립: 본당내 모든 단체장들은 빠짐없이 13~15일까지 사무실에서 78년도 계획표를 받아가세요 (시일 엄수바람)

□ 지난주 봉헌금: 60,986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사도 회장 김용환

※ 축히와 기도를!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30일)

- 축하식-27일 공식미사 후
1. 신영들을 위해 미사와 기도, 정성껏 바칩시다
2. 청년들의 모임: 13일 오후 7시반 (성서, 성가집 지참) 참회의 전례 있음 (대상-본당내 청년)
3. 고백성사: 미사시간 30분전
4. 추가분 봉헌금, 신축 헌금의 조속한 납부바람
5. B-F회합시간 변경: 매주일 저녁 7시. 성서·성가집 지참

□ 지난주 봉헌금: 46,60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각 분파 위원회 소집: 선교 (신심단체 간부) -14일<월>오후 7시반, 전례 (주일학교 교사)-15일<화>오후 8시, 봉사 (반회장)-16일<수>오후 7시반. 재경 (구역회장)-17일<목>오후 8시
2.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14일-최소피아, 15일-황배 로니까, 16일-박막달레나, 17일-육만기, 18일-김종림, 19일-염규철, 20일-김기문, 21일-정정신, 22일-이안나, 23일-김금라라, 24일-최귀남, 25일-김성녀, 26일-박순주

□ 지난주 봉헌금: 46,89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사도 회장 박장훈

1. 평신도 강론: 엄기삼선생님 교회 운영에 대한신자 태도에 대하여
2. 선교주일. L. M간부회 (회의실)
3. 반회합 (통장지참바람): 15일 (5반), 16일 (6반) 17일 (7반), 18일 (8반)
4. 특별성금...화재를 당한 이철연 신부님께 (20일)
5. 공소 판공 일정: 마음리 (12월 1일<목>), 석구리 (12월 2일<금>오전 10-오후 2시), 광곡리 (12월 2일<금>오후 4시-3일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38,125원, 감사합니다

(숲정리)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사도 회장 전종근

※ 11월은 위령 성월, 먼저가신분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합니다

1. 반상회에 모두 참석 합니다: 7반 (13일, 김연수택), 4반 (15일, 김봉래택), 서신 1구 1반 (17일), 서신2구 1반 (18일), 서신 1구 2반 (19일)

□ 지난주 봉헌금: 74,015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사도 회장 김윤성

1. 11월 사도회 의결 사항: 사도회 총회 (27일), 친구약 합본 성서 사용, 공동체 성가집의 통일, 신자 재교육육성회 (대립 1-4주일)
2. 장모회: 오늘 10시 미사후
3. 장우회: 오늘 저녁 미사후
4. 성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5. 예비자 교리: 주일-10시 (학생), 11시 (일반) <수>7시반 (젊은이), <금>7시반 (어른)
6. 새성당 미사: 주일 오후 2시, <월>저녁 7시반
7. 신용조합 윌레회: 14일 저녁 7시반

※ 새 성당 신축헌금 완납자 명단 (교동)

유석중, 김병모, 이상태, 최성용, 황귀연, 이영희, 남복성, 이이남, 김영구신부님, 서복남, 최경순, 유춘자, 오춘봉, 문재복, 오금순, 박희수, 최덕남, 진용현, 청인학, 이정자, 나유림, 서병권, 최한재, 박관순, 최옥수, 최범수, 오화영, 홍남산, 신훈상, 김동호, 조이나시오, 유화중, 김부레, 윤호희, 최옥선, 김진원, 최남규, 전승우, 이봉화, 정순래 (다음호에 계속)

□ 지난주 봉헌금: 120,960원



대성상사

□ 페인트·타이루·건재·합판 도산매, 공사청부

교우들의 깨끗한 집단장을 도와드릴송 호 현 (아오스딩)

이 남 용 (야고버)

이 정 수 (암브로지오)

★ 전주지·전북동 326-5 (전화 3-6291)

덕진 ↑

서 중 로 타 리

↓ 시내

전철로

농교 →

대성상사

시외버스 정류소